

“다시, 힐링이다”...싱글와이프2부터 호리네민박2까지



최근 방송되는 예능 힐링 앞세워 시청자와 호흡 각기 다른 포맷 선보여...대리만족으로 '호평'

유행은 돌고 돈다. 예능도 마찬가지다. 최근 방송되는 예능 속 키워드가 다시 힐링으로 돌아왔다. SBS '싱글와이프 시즌2'를 비롯해 tvN '윤식당 2', JTBC '호리네 민박2', 울리브채널 '달팽이 호텔'까지, 모두 힐링을 앞세워 시청자와 호흡하고 있다.

언급된 프로그램들 살펴보면 '달팽이 호텔'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시즌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후 시즌으로 돌아온 상황. 그만큼 지지 기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을 보였고, 그 반응은 시즌1 만큼이나 뜨겁다.

'싱글와이프'는 아내를 위한, 남편에 의한, '아내들의 낭만 일탈'을 포괄한다. 이에 남편들은 가사와 육아의 치민 아내들에게 '아내DAY'를 선사하고, 아내들 일탈을 즐기게 된다.

장석진 PD는 "아내들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안타깝다. 아내들의 진솔한 사연을 비추시고, 시청자들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즌 2에서는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졌다. MC 박명수, 유리 외엔 임백천 김연주, 서경석유대순, 유은성 김정화, 정성호 경팜을 정민식 린다 전 부부가 새롭게 합류해 더욱 강력해진 재미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윤식당'은 시즌1 인도네시아 발리 길리섬에 이어 스페인 테네리페 섬 가라치코 마을에서 작은 한식당을 열고 운영하는 이야기를 담은 나영석 PD 팀의 예능이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꿈꾸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가라치코 마을의 문화 같은 풍경으로 힐링을 선사하며 정성을 듬뿍 담아 만든 음식으로 손님들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호함을 자아내고

있다.

기존 멤버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와 새로운 알바생 박서준이 합류했다. 특히 박서준은 홀 서빙부터 재료가 준비까지 알아서 척척 맡은 일을 해내는 프로알바생의 면모를 자랑하며 특급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달팽이 호텔'은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가는 산골 속 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셀러브리티들이 쉬어가는 콘셉트의 유기농 숙박리얼리티 프로그램. 사람 냄새 나는 토크, 시골을 배회하며 한 아름다운 자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황인영 PD는 "잘 쉬어야 잘 산다는 생각을 했다. 유명인에 한정한다면보다 공감할 수 있는,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 쉬면서 여행을 즐기는 과정을 보여주면 공감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기획 의도를 전했다.

이를 위해 이경규가 호텔지배인으로 성시경 김민정이 호텔리어로 나섰다. 이경규는 따뜻한 감성으로 손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뜻밖의 매력력을 발휘하며 성시경은 이경규와 토크 제리 같은 케미를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김민정은 귀여운 외모에

아제 같은 털털한 반전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호리네 민박'은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제주도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포맷. 일반인 투숙객과 함께 지내며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한다.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느긋하게 제주도의 여유로움을 즐기는 모습을 선보인다. 시즌에서는 여름의 제주도가 아닌 겨울의 제주도를 확인할 수 있다.

호스트인 이효리 이상순은 일반인 투숙객들과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며 잡지리를 비추는 힐링 부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이 반려견 반려묘까지 함께 지내는 모습은 전원생활의 매력까지 느끼게 한다. 시즌의 아이유의 바통을 이어 받아 윤아와 박보검이 시즌의 직원으로 출연해 또 다른 매력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힐링이라는 대안제 아래 웃음이라는 필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포맷을 선보이고 있는 중. 시청자들은 TV 앞에 모여 잠시 잠깐이라도 일 상에서 벗어나 대리만족을 느끼며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블랙팬서' 예매율 66%...역대 설 개봉작 신기록



설극장 최고 기대작으로 떠오른 액션 판타지 영화 '블랙팬서' (라이언 쿵푸러 감독)와 이에 맞설 수작 스릴러 영화 '골든슬리퍼' (노동석 감독, 영화사 집 제작), 사극 영화 '홍부: 글로 세상을 바꾼 자' (이하 '홍부', 조근현 감독, 영화사극·발렌타인필름 제작)까지. 이번주 스크린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진다.

12일 오전 9시 45분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망의 실시간 예매율에 따르면 오는 14일 개봉하는 '블랙팬서'는 예매점유율 66.0%, 예매관객수 18만1429명을 기록하며 예매 순위 1위에 올랐다.

'블랙팬서'는 지구에서 가장 강한 회귀 금속 비브라늄을 보유한 와칸다의 국왕 블랙팬서가 비브라늄을 노리는 새로운 강적들의 위협에 맞서 전 세계를 지켜내야 하는 미션을 그린 작품이다.

체드의 보스만, 루피타 뇽, 포레스트 휘태크, 마틴 프리먼 등이 가세했고 '크리드'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의 라이언 쿵푸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블랙팬서'는 마블 스튜디오가

신보이는 올해 첫 번째 작품이자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 번째 챕터를 여는 중요한 시리즈로 오는 14일 전 세계 최초 국내 개봉한다. 설극장 출시표를 던진 '블랙팬서'의 반응은 그야말로 역대급 그 자체다. 개봉 2주 전부터 예매율 1위를 지키며 마블 신드롬을 예고했고 개봉주 예매율 66%를 돌파하며 흥행 청신호를 켜다. 이러한 '블랙팬서'는 역대 2월 개봉·역대 설날 연휴 개봉작·역대 마블 솔로무비·올해 개봉작 등 각종 부문 최고 예매량 수치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영화 허벤츠:에이지 오브 울트론' (15, 이하 '허벤츠2', 조스 웨딘 감독)에 이어 마블 스튜디오 영화 사상 두 번째 한국(부산) 로케이션을 진행한 '블랙팬서'는 국내 관객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은 셈이다.

흥행은 때론은 상상인 '블랙팬서'에 이어 국내 설 신작들 역시 '블랙팬서'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같은 시간 골든슬리퍼'는 예매점유율 11.1%, 예매관객수 3만9361

명을 기록하며 예매 순위 2위로, '홍부'는 예매점유율 5.0%, 예매관객수 1만1337명으로 3위에 랭크됐다.

2008년 발간된 이사가 코타로의 동명 소설, 그리고 2010년 개봉한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한 '골든슬리퍼'는 광화문에서 벌어진 대통령 후보 암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한 남자의 도주극을 그린 추적 스릴러다. 강동원, 김의성, 김성근, 김대명, 한효주, 윤계상 등이 가세했고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 '세번째 시선' '마이 제네레이션'의 노동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블랙팬서'와 같은 날 개봉하는 국내 설 신작이다.

몰아치는 경찰의 추격에 자신이 왜 암살범으로 누명을 쓰게 됐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하는 한 남자의 심리와 그를 돕는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촘촘히 그린 '골든슬리퍼'. 언론 사회를 통해 강동원의 원형소라 불릴 만큼 강동원을 전면에 내세워 관객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12월 개봉해 누적 관객수 70만명을 끌어모은 휴먼 영화 '1987'(장준환 감독)에서

강동원은 이한열 열사 역을 맡아 뜨거운 감동을 선사한바, 이번 '골든슬리퍼'에서는 180도 다른 소시민 택배기사로 변신해 설 극장 관객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어 14일 개봉하는 또 다른 설 신작인 '홍부' 역시 '블랙팬서' 뒤를 바짝 쫓는 중이다. 고전소설 '홍부전'을 새로운 관점과 설정으로 재해석한 '홍부'는 붓 하나로 조선 팔도를 들쭉이게 만든 전제자가 홍부가 남보다 못한 두 형제로부터 영감을 받아 세상을 뒤엎을 소설 '홍부전'을 집필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사극 영화다. 정우, 고(故) 김주혁, 정진영, 정해인, 김원해, 정성훈, 천우희, 진구 등이 가세했고 '86' '봄' '벚꽃'의 조근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소설 '홍부전'을 쓴 작가가 홍부라는 픽션 설정을 시작으로 세도정치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일으킨 민란 '홍경래의 난'이라는 실제 역사를 접목해 만든 픽션 사극인 '홍부'는 설 극장이 사극 영화로 관객에게 적극 어필 중이다. 무엇보다 '홍부'는 지난해 충격의 비보로 세상을 떠난 김주혁의 유작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혁 생전 마지막으로 연기 흔적을 불태운 유작인 만큼 그를 그리워하는 많은 관객이 '홍부'를 찾은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팬서'와 큰 격차로 2위, 3위를 지키고 있는 '골든슬리퍼'와 '홍부'이지만 개봉 당일 현장 예매는 '블랙팬서' 못지않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골든슬리퍼'와 '홍부'는 마니아층이 주요 타겟인 블랙팬서보다 대중적인 작품으로 기대를 모는 중. 과연 '블랙팬서'에 맞설 총무로 대표주자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컴백' 정승환, 늦겨울 녹일 정통 발라드



오는 19일 정규 1집 음반을 발표하는 가수 정승환이 타이틀곡 '비가 온다'로 올겨울 감성을 녹인다.

정승환의 '비가 온다'는 이별 후에 비가 오는 날을 핑계 삼아 지난 사랑을 떠올리는 절절한 마음을 유회열과 정승환이 직접 작사하고 발라드를 앞세운 감성적인 넘버들로 주목받는 프로듀싱팀 1601이 작곡한 정통 발라드. '발라드명가' 안테나에서 자신있게 내놓는 정승환의 정규 1집 타이틀곡으로 많은 타이틀곡 후보를 제치고 일찌감치 낙점된 트랙이다.

정승환은 '발라드 세손'이라는 애정담체 정통 발라드의 계보를 이을 준비를 마치고 애절 발라드 '비가 온다'로 가요계에 승부수를 띄운다.

이로써 지난 15년에 발표된 후 현재까지 음원차트에서 통탄하며 발라드 애창곡으로 사랑받고 있는 tvN드라마 '또 오해영'의 OST '너

였다면'을 함께 작업한 것으로 인연 맺은 프로듀싱팀 1601과는 데뷔 음반 이후의 탁월한 조화를 또 한 번 보여줄 예정이다. 1601은 지난 데뷔 음반에서도 더블 타이틀곡 '그 겨울' 및 다양한 수록곡 작업에 참여해 정승환의 감성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승환은 지난 6일 발표한 선공개곡 '눈사람'으로 4개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차원이 다른 깊은 감성을 선보였고, '눈사람'의 차트 1위 기념으로 라이브 클립을 공개해 깜짝 놀란만한 라이브로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낳은 바 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감성으로 주목받은 레트로풍의 포크 발라드 '눈사람'에 이어 주목기인 정통 발라드 '비가 온다'로 감성의 확장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오는 19일에 발표하는 정규 1집에는 타이틀곡 '비가 온다' 이외에도 어벤저스급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정규 음반 발매에 앞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정승환의 정규 1집 '그리고 봄'에는 유회열, 루시드폴, 이규호, 1601, 노리플라이, 김운산, 권영찬, 디어클라우드, 박세별, 존박, 홍소진, 적제, 멜로망스, 정동환, 이진아 등 초호화 뮤지션들과 정승환의 자작곡까지 꽉 찬 10개의 트랙이 담겼다.

정승환의 '그리고 봄'은 19일 발매 예정인 현재 음반 판매 사이트에서 예약판매차트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오늘의 순세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음력 12월 28일)

▶**쥐** 상대를 제압하려면 진실을 보이고 계획성 있는 처세를 해야 한다. 사, 오, x 성씨는 1, 8, 12월생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라. 2, 5, 9월생은 동업은 시기상조다. 본인이 가진 노력과 적인 면이 성공에 가까워지는 열쇠임.

▶**돼지** 1, 2, 10월생 채우가 있으면 빨리 해결하라. 관재수가 있겠다. 토끼, 말, 양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량을 가질 것. 사, x, t 성씨는 연인에게 더욱 솔직하게 애정을 표현하라. 흰색은 가급적 피하고, 파란색을 가까이하는 것이 좋다.

▶**호랑이** 2, 7, 11월생 애정에 너무 치우치다 가정에 소홀해져 형제간 우애도 금이 갈 듯. 희생적인 것은 좋으나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애정과 금전 관계로 구설수 있다. 하루하루 일을 반성하면서 자기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라.

▶**토끼** 당근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구나. 용, 양, 개띠에게 더욱 신경 써야 할 듯. 삶이 힘들다고 불만을 품는 것은 금물이다. 현 위치에 만족하고 서서히 전진하라. 4, 10, 11월생은 노란색이 힘이 될 것이다.

▶**용** 4, 6, 10월생 주변 사람과 의논해 협조하며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 변동하려는 사업에 한쪽 일이 풀리지 않아 마음만 아프다. 쥐, 토끼, 닭띠 도움을 받으면 큰 힘이 될 듯. 연인과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용기가 필요.

▶**소** 어떤 일든 속단하지 말고 계획이 완전히 성립한 뒤 변동할 것. 생각을 넓게, 행동을 과감히 하여 날개를 활짝 편 날 수 있다. 연인에게 너무 연연하지 말라. 세월이 약이듯 시간이 해결해준다. 1, 2, 4월생 나이 차이와 직업 때문에 갈등 있을 듯.

▶**말** 하는 일에 갈등이 크겠다. 동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는 뜻이 맞지 않을 듯. 가, 나, 사, 오 성씨를 함부로 대하다 크게 후회할 듯. 다른 각도로 자신의 위치를 보라. 현재가 전부가 아니니 미래를 생각하라. 7, 8, 9월생 북쪽은 불길.

▶**개** 1, 4, 6월생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신병이 올 수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 자신을 너무 과시하는 행위는 자신을 오히려 초라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겸손함과 봉사하는 자세를 배우라. 자식 과잉보호는 금물.

▶**원숭이** 오, 나, x, t 성씨는 안 되는 것 잡고 있지만 말고, 과감히 변동해보라. 길이 있다. 7, 8, 9월생 파란색 속옷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원동력이 될 듯. 범, 뱀, 돼지띠 연인이 귀인일 듯하니 행동을 신중히 하라. 평소 생활에 내일을 기하는 것이 길하다.

▶**닭** 5, 10, 12월생 지혜를 얻어 다시 도전하라. 길이 많이 있다. 풀리지 않은 일들이 서서히 호환으로 이를 듯. 대신 관계를 폭넓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남자 소, 토끼, 양, 돼지띠 부부는 불만과 고민이 많겠지만 서로 이해할 자세를 가질 것.

▶**곰** 1, 8, 10월생 주고받는 데는 영수증이 꼭 필요하다. 용, 원숭이, 돼지띠와 의견 충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웃음이 해픈 사람은 화를 잘 낸다는 것을 유념해 상대방을 대하라.

▶**돼지** 가, 오, 등 성씨 직장과 가정을 한꺼번에 신경 쓰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몸도 생각할 것. 자식 걱정이 크겠지만, 그들의 뜻대로 말라. 투자한 곳에 손해가 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듯. 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좋다.